노인교육 프로그램 선호도에 대한 연구

장창수
연구진

연구책임

• 장창수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목차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 배경 ......................................................................................................... 3
  제2절 연구 목적 ....................................................................................................... 4
  제3절보고서의 구성 .................................................................................................. 4

제2장 노인교육의 이론적 배경 ...................................................................................... 9
  제1절 노인교육의 개념 및 중요성 ............................................................................. 9
  제2절 노인교육 관련 법과 정책 ............................................................................... 12
  제3절 대전시 노인교육기관 운영 실태 ................................................................... 18
  제4절 선형연구 검토 ................................................................................................ 20

제3장 연구설계 ............................................................................................................... 25
  제1절 조사대상 표집과 자료수집 ......................................................................... 25
  제2절 조사내용 ........................................................................................................ 25
  제3절 자료분석 ......................................................................................................... 26

제4장 연구결과 분석 ....................................................................................................... 31
  제1절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특성 ......................................................................... 31
  제2절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 .................................................................................. 36

제5장 결론 및 제언 .......................................................................................................... 53

참고문헌 ...................................................................................................................... 59
부 록 ............................................................................................................................. 65
<table>
<thead>
<tr>
<th>표</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표 2-1</td>
<td>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td>
</tr>
<tr>
<td>표 2-2</td>
<td>대전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td>
</tr>
<tr>
<td>표 2-3</td>
<td>노인교육에 관한 선행연구</td>
</tr>
<tr>
<td>표 3-1</td>
<td>설문조사 영역 및 항목</td>
</tr>
<tr>
<td>표 4-1</td>
<td>성별 분포도</td>
</tr>
<tr>
<td>표 4-2</td>
<td>학력별 분포도</td>
</tr>
<tr>
<td>표 4-3</td>
<td>종교별 분포도</td>
</tr>
<tr>
<td>표 4-4</td>
<td>결혼상태 분포도</td>
</tr>
<tr>
<td>표 4-5</td>
<td>연령별 분포도</td>
</tr>
<tr>
<td>표 4-6</td>
<td>건강상태별 분포도</td>
</tr>
<tr>
<td>표 4-7</td>
<td>생활수준별 분포도</td>
</tr>
<tr>
<td>표 4-8</td>
<td>당면한 어려운 문제점</td>
</tr>
<tr>
<td>표 4-9</td>
<td>노인교육의 필요성</td>
</tr>
<tr>
<td>표 4-10</td>
<td>노인교육기관 선호도</td>
</tr>
<tr>
<td>표 4-11</td>
<td>노인교육 강사 선호도</td>
</tr>
<tr>
<td>표 4-12</td>
<td>노인교육프로그램 참여 여부</td>
</tr>
<tr>
<td>표 4-13</td>
<td>노인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참여 여부</td>
</tr>
<tr>
<td>표 4-14</td>
<td>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td>
</tr>
<tr>
<td>표 4-15</td>
<td>성별 건강 및 복지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td>
</tr>
<tr>
<td>표 4-16</td>
<td>성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td>
</tr>
<tr>
<td>표 4-17</td>
<td>성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td>
</tr>
</tbody>
</table>
<표 4-18> 학력별 건강 및 복지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43
<표 4-19> 학력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44
<표 4-20> 학력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45
<표 4-21> 건강상태별 건강 및 복지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45
<표 4-22> 건강상태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46
<표 4-23> 건강상태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47
<표 4-24> 생활수준별 건강 및 복지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47
<표 4-25> 생활수준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48
<표 4-26> 생활수준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4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체계 ........................................................................................................ 5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 현대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의학과 과학의 발달, 교육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3%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1년 현재 11.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2018년에 14.3%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에 이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통계청, 2011).

○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인구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로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들을 수반하며, 이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 인구 고령화 추세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수반하게 되면서 노인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 예를 들면 노년기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 건강 및 부양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그 중에서 은퇴 후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노인교육임.

○ 즉 노인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돕고, 스스로 차립할 수 있는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대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인교육 프로그램 선호도와 같은 노인들의 교육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목적

○ 최근에 노인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복지분야 연구자들이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교육 관련 연구에서 주로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미래의 노년층인 예비노년층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음. 특히 노년층과 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교육에 대한 유행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현재 노년층 노인교육뿐만 아니라 향후 노년층이 되는 예비노년층에 대한 미래지향적 노인교육 정책방향 설정에 부족한 점이 많았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지역의 노년층과 예비노년층의 노인교육에 대한 신호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구고령화와 사회변화에 알맞은 노인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본 보고서의 다음과 같이 5장으로 구성하였음.
  - 제1장은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배경과 연구의 목적, 그리고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 제2장에서는 노인교육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 노인교육의 개념과 중요성, 노인교육 관련 법과 정책, 대전시 노인교육기관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를 하였음.
  - 제3장은 연구설계로서 자료수집 절차와 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을 서술하였음.
  -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책제안으로 결론을 제시하였음.

- 4 -
[그림 1-1] 연구 체계

문헌 고찰

▽

설문 조사

<table>
<thead>
<tr>
<th>【예비노년층】</th>
<th>【노인층】</th>
</tr>
</thead>
<tbody>
<tr>
<td>◇ 인구학적 특성</td>
<td></td>
</tr>
<tr>
<td>- 성별, 학력별, 건강상태, 결혼상태, 생활수준 등</td>
<td></td>
</tr>
<tr>
<td>◇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td>
<td></td>
</tr>
<tr>
<td>- 노인교육의 필요성, 노인교육기관 설치 장소</td>
<td></td>
</tr>
<tr>
<td>- 노인교육 강사, 노인교육 참여 욕구 등</td>
<td></td>
</tr>
<tr>
<td>- 노화로 겪고 있는 노인문제 등</td>
<td></td>
</tr>
<tr>
<td>◇ 교육프로그램 선호도</td>
<td></td>
</tr>
<tr>
<td>- 건강관리교육, 재취업 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td>
<td></td>
</tr>
<tr>
<td>- 가족생활 교육, 대인관계 교육, 취미여가활동교육</td>
<td></td>
</tr>
<tr>
<td>- 사회변화 및 시사교육, 경제생활교육, 자원봉사교육 등</td>
<td></td>
</tr>
</tbody>
</table>

▽

조사결과 분석

▽

정책 방안 도출

- 5 -
제 2 장

노인교육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교육의 개념 및 중요성
제2절 노인교육 관련 법과 정책
제3절 대전시 노인교육기관 운영 실태
제4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노인교육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교육의 개념


○ 둘째, 노인에 관한 교육은 초등고 및 대학, 사회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퇴직을 앞둔 이들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노인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그런 직업을 원하는 이들에 대한 노년학 관련 교육까지를 포함함.

○ 셋째, 노인에 의한 교육은 노인들의 일생을 통해서 귀중한 경험과 지식 및 기술들을 교육이라는 장소와 제도를 통해 후세에 전하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에 의미를 둔.

○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노인교육의 의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하나는 은퇴후의 즐거운 생활의 수단으로서 여가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힘을 기르기 위한 교육임 (최순남, 2000: 63). 현재는 이러한 노인교육이 단순한 복지적 차원을 넘어서 인 간의 전 생애에 걸친 생애교육의 차원에서도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노인을 위한 교육은 노인을 피교육자로 하는 교육으로서 처 방적-치료적인 성격을 가지는 교육이며, 노인에 관한 교육은 실증적인 노인교육 의 분야로서 노인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나 전문가 및 노인에 대한 피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노인에 의한 교육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분 야로서 후세대에게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전달하는 교육임.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분야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될 때, 노인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높아지 며, 보다 높은 교육적 가치를 발휘 할 수 있음(한정란, 1994).

2 노인교육의 필요성

○ 현대사회에서 노인교육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노인의 교육적 욕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1) 사회적 환경 변화
(1)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 출현
○ 미래사회는 모든 연령층의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를 요구함. 즉, 어느 연령 층을 불문하고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 그들이 지닌 지식과 기술을 확장 시키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회를 학습사회라고 할 수 있으며, 노인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음.

(2) 급속한 사회변화와 세대간 갈등
○ 사회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회변화의 주기가 인간의 평균수명을 늘아가게 되
어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의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이 끊임없이 새로운되고, 이러한 사회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

○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는 혁가족화와 세대간 갈등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세대간 접촉의 기회가 줄어 들고 있음. 가정내 또는 사회의 세대간 분리를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세대간의 이해와 정보교류, 화합을 위해서도 세대간 이해 증진을 위한 노인교육이 요청됨.

3) 노인에 대한 시각의 변화

○ 노인을 신체적·사회적 약자로 보기보다는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노인의 지닌 능력을 개발해야 할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접으로써 노인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선진국들 중심으로 노인을 사회적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기여하는 존재로 인정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음(Midwinter, 1998).

4) 노인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 변화

○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변화 추세는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의 증가를 가져왔음. 따라서 과거에 비해 교육 및 사회적 수준이 높아진 노인들은 의식주 이상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 특히 베이비 봄 세대는 이전세대에 비해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에 대한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5) 평생교육의 욕구 증대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며, 노인문제해결의 소극적 자세보다 적극적 대안으로 노인교육
과 취업에 중점을 두는 정책적 변화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전망속에 고령화가 경제, 복지, 노동시장, 의료, 교육 등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특히 활동적인 고령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 있어 고령자의 자립능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노년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보건복지부, 2008).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고령화 정책들은 고령자를 저소득, 저학력, 저지위의 소외계층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저소득층 중심의 노인복지 서비스, 소득보전 위주의 노인일자리, 여가 중심의 노인활동 프로그램 등에만 치중함으로써 고령자 자신의 능력개발이나 자아실현 등 절적인 영역에 대한 중요성은 간과되어온 측면이 있음.
○ 이러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월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고령자 교육정책을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러한 계획은 극히 일부만 추진되었을 뿐, 고령자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포부와는 다르게, 현재는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외에는 노인교육과 관련 사업이 전무한 상태임(김태준외, 2007).
○ 많은 선행 연구들에 지적하였듯이, 노인교육 정책 및 관리체계의 부재와 혼란, 노인교육현장에 관한 관리 및 지원체계 부족, 전문인력 양성체계 부재 등을 볼 수 있음.

제2절 노인교육 관련 법과 정책

1. 노인교육의 법적 근거
○ 우리나라의 노인교육과 관련 법은 크게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으로 나눌 수 있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노인복지법 제1장 1조).

노인복지법에서는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됨. 여기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함(개정 2007.8.3).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 노인들에게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게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노인교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교육은 노인의 여가복지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있음. 결국 노인복지법 조차 노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너무나 적은 편이다.

노인복지법 제 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에 따르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음(개정 2008.1.28).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
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음. 한편,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음<개정 2008.1.28>
○ 노인교육의 대상을 연령으로 제한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욕구보다는 외적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노인교육을 규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연령기준은 지속적인 학습과정으로서의 노인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노년기 교육을 그 이전단계 와의 관련성이 없이 단절적인 학습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됨.
○ 시설의 설치는 시장, 군주,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여 입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감독의 감독이 취약함.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6.7>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 노인교육과 관련하여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보건복지부, 2008에서 인용).
○ 첫째, 노인교육 개념의 모호성: 노인교육을 노인여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교실에서 노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일상생활 관련 학습’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
○ 둘째, 시설명칭과 기능 구분의 문제: 경로당,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의 기능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라, 현재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사용중인 노인대학, 노인학교, 실버대학 등의 명칭과 혼란을 가짐. 법제상으로 기능 및 서비스에 의한 구분이 아닌 시설에 따른 구분을 따르면서도 실제로 실천현
장에서는 시설 명칭조차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임.

○ 셋째,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교육 현실이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와 휴게실 하나, 그리고 시설장 1인이 충족되는 노인 교실의 규정은 지나치게 소홀한 갑이 없지 않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법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 이 법에 의하면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①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육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그러나 이 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대상자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고, 노인교육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즉 노인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음.

3) 기타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교육을 노인이라는 대상자를 위한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교육을 설명하는 한편, 퇴직교원의 대상의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은 퇴직자(노인)가 주체가 되는 ‘노인에 의한 교육’을 의미하고 있음.

○ 노인과 관련하여, 퇴직교원의 대상의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 있음. 이 법의 목적은 제1조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
하여 청소년 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사업은 (제6조) 평생교육활동,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교육 정책 모니터활동,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봉사활동, 그 밖에 참임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2. 노인교육 관련 정책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을 발표하여, 5개년 동안 5개 영역 27개 과제에 걸쳐 총 690여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계획되었고, 그 중 노인교육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약속되었지만, 대부분 추진되지 못한채, 노인교육 지원은 축소되었음.

1) 교육인적자원부의 노인교육전문가 양성과정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별로 우수한 ‘노인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을 선정, 지원하여 모범적인 양성과정을 전국적으로 전파함으로써 노인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노인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이 사업으로 5년간 배출된 노인교육 전문가 수요자는 총 4,000여명 이며, 약 5년동안 7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사업에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조차 없음. 사업
을 통해 배출된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도 없이 사업이 종결되었음.

2) 금빛평생교육봉사단
○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퇴직자를 평생교육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퇴직자 인적 자원활용+평생교육+자원봉사’의 새로운 연계모델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봉사자 조성하여 지역의 퇴직자인력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임. 사업은 평생교육센터, 16개 시도교육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등의 공동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프로그램 메뉴얼 작성, 관리자 연수 등 지원업무와 사업에 대한 총괄평가 업무를 맡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는 자원봉사의 교육 및 배치, 자원봉사자의 사후관리 업무를 맡으며, 평생학습관은 자원봉사자 센터 및 자율연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3) 노인교육과정 시범운영 지원사업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부터 노인교육과정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명예학생제도, 세대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음. 교육인적자원부는 노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이후 ‘노인교육과정 시범운영 지원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일부가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축소, 통합되었음.

4)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년부터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상대적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확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에 대한 교육기관의 확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근로청소년, 성인, 출소자, 중도탈락자 등에게 중등교육기관 진입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제3절 대전시의 노인교육기관 운영실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교육관련 시설로는 <표 2-1>과 같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음.

＜표 2-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table>
<thead>
<tr>
<th>시설</th>
<th>설치 목적</th>
<th>대상자</th>
<th>설치</th>
</tr>
</thead>
<tbody>
<tr>
<td>노인복지관</td>
<td>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td>
<td>60세 이상의 자</td>
<td>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td>
</tr>
<tr>
<td>경로당</td>
<td>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td>
<td>65세 이상의 자</td>
<td>&quot;</td>
</tr>
<tr>
<td>노인교실</td>
<td>노인들에게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육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td>
<td>60세 이상의 자</td>
<td>&quot;</td>
</tr>
<tr>
<td>노인휴양소</td>
<td>노인들에게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td>
<td>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td>
<td>&quot;</td>
</tr>
</tbody>
</table>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주)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근거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 지침사항(10.8.31)이후 1년 이내에 현행규정에 적합하게 이행해야하는 관계로 금년도 현황에서 제외함

○ 대전광역시 여가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2>와 같이 노인복지관이 6개소, 경로당이 746개소, 노인교실이 35개소, 노인휴양소(효문화마을)가 1개소 등이 있음.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은 총 6개소로 동구에 2개소가 있음. 서구노
인복지관의 경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회교육, 보건의료,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연계, 상담, 복리후생사업, 지역복지사업, 조직역량강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교육사업은 주로 건강과 취미, 오락 여가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서구노인복지관, 2011). 기타의 경우도 노인복지관 사업을 평생교육육사업과, 일자리, 건강, 사회참여, 경로당활성화, 재가복지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인휴양소인 대전의 "효문화 마을"의 프로그램은 주로, 취미생활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면,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의 하나이며,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노인교실은 실제로는 노인학교, 노인대학으로 불리며, 개인이나 등록된 사회단체가 교육법에 의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자의로 설립한 기관이며, 시설과 장소에 상관없이 설립자에 의해 학칙이 정해지고 교재, 수업연한, 강사, 교육과정, 학생관리, 경비조달 등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보건복지부, 2008).

<표 2-2> 대전광역시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table>
<thead>
<tr>
<th>구 별</th>
<th>65세이상 노인인구</th>
<th>합계</th>
<th>노인복지관</th>
<th>경로당</th>
<th>노인교실</th>
<th>노인휴양소</th>
</tr>
</thead>
<tbody>
<tr>
<td>대전 광역시</td>
<td>130,245</td>
<td>788</td>
<td>6</td>
<td>746</td>
<td>35</td>
<td>1</td>
</tr>
<tr>
<td>대덕구</td>
<td>17,485</td>
<td>122</td>
<td>1</td>
<td>113</td>
<td>8</td>
<td>0</td>
</tr>
<tr>
<td>동구</td>
<td>28,419</td>
<td>162</td>
<td>2</td>
<td>154</td>
<td>6</td>
<td>0</td>
</tr>
<tr>
<td>서구</td>
<td>36,698</td>
<td>193</td>
<td>1</td>
<td>185</td>
<td>7</td>
<td>0</td>
</tr>
<tr>
<td>유성구</td>
<td>17,695</td>
<td>168</td>
<td>1</td>
<td>157</td>
<td>10</td>
<td>0</td>
</tr>
<tr>
<td>중구</td>
<td>29,948</td>
<td>143</td>
<td>1</td>
<td>137</td>
<td>4</td>
<td>1</td>
</tr>
</tbody>
</table>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제4절 선행연구 검토

○ 노인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1>과 같음.
  - 첫째, 노인교육에 관한 문헌고찰 연구로 이론과 정책에 관련된 연구
  - 둘째, 노인교육관련 실증연구로 교육목표 및 만족도 연구
  - 셋째, 구체적인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연구임.


○ 한정란 등(2009)은 중년층과 노년층의 노인교육수요에 대한 조사결과, 중년층과 노년층 모두 노인교육 참여 의사가 높았으며, 중년층을 위한 노후준비교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노년층을 위해서는 건강관리교육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제시하였음. 노년층 및 중년층 모두 건강관리교육에 대한 기본교육에 초점을 두되, 중년층을 위한 경제교육과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표 2-3 노인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연구자(년도)</th>
<th>논문제목</th>
</tr>
</thead>
<tbody>
<tr>
<td>현황 및 정책</td>
<td>신재주(2002)</td>
<td>노인교육환경화 방안</td>
</tr>
<tr>
<td></td>
<td>이화정(2000)</td>
<td>문화적 전환을 위한 노인교육의 새로운 과제</td>
</tr>
<tr>
<td></td>
<td>이은경(2000)</td>
<td>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교육의 발전방안</td>
</tr>
<tr>
<td></td>
<td>모선희(1998)</td>
<td>노인학교의 현황 및 발전방안</td>
</tr>
<tr>
<td></td>
<td>이인수(1998)</td>
<td>노인학교 개편정립에 관한 고찰</td>
</tr>
<tr>
<td></td>
<td>정종식(1999)</td>
<td>생명교육자가로서의 노인교육</td>
</tr>
<tr>
<td></td>
<td>신용주(2000)</td>
<td>노인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영국의 3연령 교육정책을 중심</td>
</tr>
<tr>
<td></td>
<td>한규량(1998)</td>
<td>생명교육 과정으로서의 한국과 일본의 노인교육프로그램</td>
</tr>
<tr>
<td>실천</td>
<td>한정란(2009)**</td>
<td>중년층과 노년층의 노인교육 요구</td>
</tr>
<tr>
<td></td>
<td>김서희(2005)**</td>
<td>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교육요구도</td>
</tr>
<tr>
<td></td>
<td>이경희(2004)**</td>
<td>노인학습자들의 교육 참여 실태조사 분석</td>
</tr>
<tr>
<td></td>
<td>홍기형(2002)</td>
<td>노인의 학습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td>
</tr>
<tr>
<td></td>
<td>홍기형(2000)</td>
<td>폐기교원의 교육요구에 관한 기초연구</td>
</tr>
<tr>
<td></td>
<td>박성복(2000)</td>
<td>노인교육수강자와 비수강자의 노인교육프로그램 요구조사</td>
</tr>
<tr>
<td></td>
<td>이은경(2001)</td>
<td>노인교육과 사회진로, 생활만족에 관한 사례연구</td>
</tr>
<tr>
<td></td>
<td>조경욱(2004)</td>
<td>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종교기관의 노인교육활동 참여</td>
</tr>
<tr>
<td></td>
<td>이인수(1999)</td>
<td>노인학교 수강생의 생활특성에 관한 연구</td>
</tr>
<tr>
<td></td>
<td>박성복(1997)</td>
<td>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노인교육 및 삶의 질</td>
</tr>
<tr>
<td></td>
<td>김명준(2003)</td>
<td>노인교육 프로그램이 노인의 일상생활능력과 건강노화 노력에 미치는 영향</td>
</tr>
<tr>
<td></td>
<td>박희호(2004)</td>
<td>노인교육과정에 관한 참여편성 및 포커스인터뷰</td>
</tr>
<tr>
<td></td>
<td>한정란(1994)</td>
<td>세대공동체를 통한 노인교육 교육과정의 예시적 실천연구</td>
</tr>
<tr>
<td>퇴직 후</td>
<td>이수미(1998)</td>
<td>퇴직 전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td>
</tr>
<tr>
<td>직적비교육</td>
<td>홍기형(1984)</td>
<td>교육의 퇴직 후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td>
</tr>
<tr>
<td></td>
<td>김성희(1993)</td>
<td>노인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td>
</tr>
<tr>
<td></td>
<td>홍기형(2000)</td>
<td>퇴직예정자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td>
</tr>
<tr>
<td></td>
<td>홍기형(1998)**</td>
<td>퇴직자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인원 탐색을 통한 퇴직준비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td>
</tr>
<tr>
<td>프로그램 개발</td>
<td>서혜경(1992)</td>
<td>죽음준비교육</td>
</tr>
<tr>
<td>죽음준비교육</td>
<td>안창린(1999)</td>
<td>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td>
</tr>
<tr>
<td></td>
<td>고승덕(1999)</td>
<td>노인의 죽음준비교육이 죽음의 불안도에 미치는 요인분석연구</td>
</tr>
<tr>
<td>생활교육</td>
<td>김광신(1996)</td>
<td>노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td>
</tr>
<tr>
<td>생활교육</td>
<td>전길양(2000)</td>
<td>노년기 준비 교육 프로그램</td>
</tr>
<tr>
<td></td>
<td>이순희(2001)</td>
<td>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결과분석</td>
</tr>
<tr>
<td></td>
<td>박석준(2002)**</td>
<td>노인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td>
</tr>
<tr>
<td>건강증진</td>
<td>구미혁(2002)**</td>
<td>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연구</td>
</tr>
<tr>
<td>건강증진</td>
<td>민순희(2002)**</td>
<td>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td>
</tr>
</tbody>
</table>

** 본 연구자가 첨가한 내용임.
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조사대상 표집과 자료수집

제2절 조사내용

제3절 자료분석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조사대상 표집과 자료수집

○ 노인대학 및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현재 대전광역시의 6개 노인복지관 부설 노인대학(학교)1) 중에서 4개소와 3개 평생교육문화센터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하여 이곳에서 수강 중인 만 45세 이상 수강생 중에서 405명을 조사대상자로 표집하였음.

○ 본 조사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 동안 실시되었음. 조사방 법은 사전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조사원 7명이 노인대학과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특히 글을 읽지 못하거나 혼자서 설문내용을 표시할 수 없는 노인들은 조사원들이 설문내용을 읽어주면서 도와주형태를 취하였음.

제2절 조사내용

○ 현재 만 60세 이상 노년층과 만 45-59세의 예비노년층의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일반적 특성으로 성, 연령, 종교, 학력, 결혼상태를 살펴보았고, 생활특성으로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생활수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살펴보았음.

1) 본 연구에서 노인교육기관의 용어로 ‘노인대학’, ‘노인학교’로 혼용하고 있다.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공식명칭은 현재 노인복지법(제36조)에서 노인교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노인학교, 노인대학, 장수대학, 경로대학 등 다양한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노인대학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 파악을 위해 노인교육의 필요성, 선호하는 노인교육기관 및 강사, 노후 교육프로그램 참여의사, 노인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 의사 등 을 살펴보았음.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살펴보았으며, 교육프로그램은 건강관리교육, 노화에 대한 이해교육, 재취업 기술교육, 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 외국어 교육, 노인의 성과 제혼관련 교육, 가족생활 교육, 대인관계 교육, 노인복지 교육, 법률 및 재산관리교육, 취미·여가활동교육, 사회변화 및 시사교육, 경제생활 교육, 자원봉사교육, 종교생활교육 등임(표 3-2-2 참조).

지3절 자료분석

노인대학 및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수집된 자료
405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음.

○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코딩작업 후 수정을 거쳐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인 SPSS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자료는 분석목적에 따라 빈도분석과 카이스퀘어 검정($X^2$), T-검정, 일원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음.

○ 문항분석에 관한성이 없는 ‘비용담과 무응답’의 경우는 문항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 적용과 반올림 관계로 백분율의 합계가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비율을 100.0으로 제시하였음.
제 4 장

연구설계

제1절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특성

제2절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
제4장 조사결과 분석

제1절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실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별
   ○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가 53.1%, 여자가 46.9%로 나타났음. 예비노년층은 여자가 52.0%, 남자가 48.0%이며, 노년층은 여자가 54.1%, 남자가 45.9%임.

   <표 4-1> 성별 분포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td>
<td>빈도</td>
<td>비율</td>
<td>빈도</td>
</tr>
<tr>
<td>① 남자</td>
<td>190</td>
<td>46.9</td>
<td>96</td>
</tr>
<tr>
<td>② 여자</td>
<td>215</td>
<td>53.1</td>
<td>104</td>
</tr>
<tr>
<td>계</td>
<td>405</td>
<td>100.0</td>
<td>200</td>
</tr>
</tbody>
</table>

2) 학력별
   ○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분포는 <표 4-2>와 같이 대졸 이상이 43.2%, 고졸이 29.1%, 중졸이 13.6%, 초졸 이하가 14.1%로 나타났음.
   ○ 예비노년층의 경우는 대졸 이상이 62.5%, 고졸이 32.0%, 중졸 이하가 5.5%이며, 노년층의 경우는 초졸 이하가 26.8%, 고졸이 26.3%, 대졸 이상이 24.4%, 중졸이 22.4%로 나타남.

2) 다른 조사와 비교하여 본 조사에서 노년층의 학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이유는 조사 대상자를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임.
3) 종교별

○ 조사대상자의 종교별 분포도는 <표 4-3>과 같이 ‘종교 없음’이 30.6%, 불교가 28.4%, 기독교가 27.2%, 천주교가 12.8%의 순서로 나타났음.
○ 예비노년층은 종교 없음이 34.5%, 불교 29.0%, 기독교 28.5%, 천주교 8.0%이며, 노년층은 불교가 27.8%, 종교 없음이 26.8%, 기독교가 25.9%, 천주교가 17.6%로 나타남.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td>
<td>빈도</td>
<td>비율</td>
<td>빈도</td>
</tr>
<tr>
<td>1 종교 없음</td>
<td>124</td>
<td>30.6</td>
<td>69</td>
</tr>
<tr>
<td>2 불교</td>
<td>115</td>
<td>28.4</td>
<td>58</td>
</tr>
<tr>
<td>3 기독교</td>
<td>110</td>
<td>27.2</td>
<td>57</td>
</tr>
<tr>
<td>4 천주교</td>
<td>52</td>
<td>12.8</td>
<td>16</td>
</tr>
<tr>
<td>5 기타</td>
<td>4</td>
<td>1.0</td>
<td>0</td>
</tr>
<tr>
<td>계</td>
<td>405</td>
<td>100.0</td>
<td>200</td>
</tr>
</tbody>
</table>
4) 결혼 상태
○ 조사대상자의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이 ’배우자 있음’이 84.4%이며, ’배우자가 없음’이 15.6%로 나타남.
○ 예비노년층의 경우 ’배우자 있음’이 94.5%, ’배우자 없음’이 5.5%이며, 노년층의 경우 ’배우자 있음’이 73.7%, ’배우자 없음’이 26.3%임.

<표 4-4> 결혼 상태 분포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td>
<td>번도</td>
<td>비율 (%)</td>
<td>번도</td>
</tr>
<tr>
<td>① 베허자 있음(초혼)</td>
<td>339</td>
<td>83.7</td>
<td>189</td>
</tr>
<tr>
<td>② 사별, 별거, 이혼</td>
<td>63</td>
<td>15.6</td>
<td>9</td>
</tr>
<tr>
<td>③ 재혼</td>
<td>1</td>
<td>0.2</td>
<td>0</td>
</tr>
<tr>
<td>④ 미혼</td>
<td>2</td>
<td>0.5</td>
<td>2</td>
</tr>
<tr>
<td>계</td>
<td>405</td>
<td>100.0</td>
<td>200</td>
</tr>
</tbody>
</table>

5) 연령별
○ 조사대상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예비노년층인 45세~59세가 49.4%이며, 노년층으로 분류된 60세 이상이 50.6%이었음.

<표 4-5> 연령별 분포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번도(명)</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45세~49세</td>
<td>81</td>
<td>20.0</td>
</tr>
<tr>
<td>② 50세~59세</td>
<td>119</td>
<td>29.4</td>
</tr>
<tr>
<td>③ 60세~69세</td>
<td>104</td>
<td>25.7</td>
</tr>
<tr>
<td>④ 70세 이상</td>
<td>101</td>
<td>24.9</td>
</tr>
<tr>
<td>계</td>
<td>405</td>
<td>100.0</td>
</tr>
</tbody>
</table>
2 생활특성

1) 건강상태별
○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표 4-6>에서 살펴보면 ‘건강이 좋다’는 응답이 47.6%이며 ‘보통이다’가 38.8%, ‘나쁘다’는 응답이 13.6%로 나타남.
○ 예비노년은 ‘건강이 좋다’가 57.5%, ‘보통이다’가 37.0%, ‘나쁘다’가 5.5%이며, 노년층은 ‘건강이 좋다’가 38.1%, ‘보통이다’가 40.5%, ‘나쁘다’가 21.5%임.

<표 4-6> 건강상태별 분포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td>
<td>비도</td>
<td>비율</td>
<td>비도</td>
</tr>
<tr>
<td>① 매우 좋다</td>
<td>30</td>
<td>7.4</td>
<td>19</td>
</tr>
<tr>
<td>② 좋은 편이다</td>
<td>163</td>
<td>40.2</td>
<td>96</td>
</tr>
<tr>
<td>③ 보통이다</td>
<td>157</td>
<td>38.8</td>
<td>74</td>
</tr>
<tr>
<td>④ 나쁜 편이다</td>
<td>45</td>
<td>11.1</td>
<td>10</td>
</tr>
<tr>
<td>⑤ 매우 나쁘다</td>
<td>10</td>
<td>2.5</td>
<td>1</td>
</tr>
<tr>
<td>계</td>
<td>405</td>
<td>100.0</td>
<td>200</td>
</tr>
</tbody>
</table>

2) 생활수준별
○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생활수준을 살펴본 결과 <표 4-7>과 같이 ‘보통이다’가 74.3%, ‘못산다’가 15.8%, ‘잘사는 편이다’가 9.9%로 나타남.
○ 예비노년층의 경우 ‘보통이다’가 79.5%, ‘못산다’가 10.5%, ‘잘사는 편이다’가 10.0%이며, 노년층의 경우는 ‘보통이다’가 69.3%, ‘못산다’가 21.0%, ‘잘사는 편이다’가 9.8%로 나타났음.
표 4-7 생활수준별 분포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td>
<td>빈도</td>
<td>비율</td>
<td>빈도</td>
</tr>
<tr>
<td>① 잘사는 편이다</td>
<td>40</td>
<td>9.9</td>
<td>20</td>
</tr>
<tr>
<td>② 보통 정도이다</td>
<td>301</td>
<td>74.3</td>
<td>159</td>
</tr>
<tr>
<td>③ 못사는 편이다</td>
<td>61</td>
<td>15.1</td>
<td>21</td>
</tr>
<tr>
<td>④ 매우 못산다</td>
<td>3</td>
<td>0.7</td>
<td>0</td>
</tr>
<tr>
<td>계</td>
<td>405</td>
<td>100.0</td>
<td>200</td>
</tr>
</tbody>
</table>

2) 당면한 어려운 문제
○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표 4-8> 과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17.1%, ‘건강의 악화’가 16.5%, ‘자녀 등 젊은세대와 갈등’이 10.2%, ‘소일거리와 삶의 보람이 없음’이 8.1%, ‘고독과 외로움’이 6.9%,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4.4%, ‘사회의 푸대접과 무관심’이 3.3%, ‘배우자 상실’이 2.7%로 나타났음.

표 4-8 당면한 어려운 문제점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td>
<td>빈도</td>
<td>비율</td>
<td>빈도</td>
</tr>
<tr>
<td>① 배우자 상실</td>
<td>14</td>
<td>2.7</td>
<td>2</td>
</tr>
<tr>
<td>② 고독과 외로움</td>
<td>36</td>
<td>6.9</td>
<td>18</td>
</tr>
<tr>
<td>③ 건강의 악화</td>
<td>86</td>
<td>16.5</td>
<td>29</td>
</tr>
<tr>
<td>④ 경제적인 어려움</td>
<td>89</td>
<td>17.1</td>
<td>47</td>
</tr>
<tr>
<td>⑤ 자녀 등 젊은세대와 갈등</td>
<td>53</td>
<td>10.2</td>
<td>36</td>
</tr>
<tr>
<td>⑥ 소일거리와 삶의 보람이 없음</td>
<td>42</td>
<td>8.1</td>
<td>14</td>
</tr>
<tr>
<td>⑦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td>
<td>23</td>
<td>4.4</td>
<td>9</td>
</tr>
<tr>
<td>⑧ 사회의 푸대접과 무관심</td>
<td>17</td>
<td>3.3</td>
<td>5</td>
</tr>
<tr>
<td>⑨ 아무런 문제가 없음</td>
<td>160</td>
<td>30.8</td>
<td>84</td>
</tr>
<tr>
<td>계</td>
<td>520</td>
<td>100.0</td>
<td>244</td>
</tr>
</tbody>
</table>

주) 복수응답의 결과임.
○ 예비노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19.3%, ‘자녀 등 젊은 세대와 갈등’이 14.8%, ‘건강의 악화’가 11.9%, ‘고독과 외로움’이 7.4%, ‘소일거리와 삶의 보람이 없음’이 5.7%,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3.7% 등의 순서이며, 노년층은 ‘건강의 악화’가 20.7%, ‘경제적인 어려움’이 15.2%, ‘소일거리와 삶의 보람이 없음’이 10.1%, ‘고독과 외로움’이 6.5%, ‘자녀 등 젊은 세대와 갈등’이 6.2%,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5.1%, ‘배우자의 상실’과 ‘사회의 끔찍함과 무관심’이 4.3%로 예비노년층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제2절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

1. 노인교육의 필요성

○ 조사대상자에게 노인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표 4-9>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95.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예비노년층은 98.5%가, 노년층은 93.2%가 노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표 4-9> 노인교육의 필요성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td>
<td>동도</td>
<td>비율</td>
<td>동도</td>
</tr>
<tr>
<td>① 매우 필요하다</td>
<td>277</td>
<td>68.4</td>
<td>137</td>
</tr>
<tr>
<td>② 필요한 편이다</td>
<td>111</td>
<td>27.4</td>
<td>60</td>
</tr>
<tr>
<td>③ 보통하다</td>
<td>13</td>
<td>3.2</td>
<td>1</td>
</tr>
<tr>
<td>④ 필요치 않은 편이다</td>
<td>2</td>
<td>0.5</td>
<td>1</td>
</tr>
<tr>
<td>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td>
<td>2</td>
<td>0.5</td>
<td>1</td>
</tr>
<tr>
<td>계</td>
<td>405</td>
<td>100.0</td>
<td>200</td>
</tr>
</tbody>
</table>
2. 노인교육기관 선호도

○ 노인교육기관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표 4-10>과 같이 노인복지관이 48.6%,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가 24.9%, 평생교육센터가 22.7%, 대학교 평생교육관이 3.7%의 순으로 나타남.

○ 예비노년층은 노인복지관이 36.0%,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가 31.0%, 평생교육센터가 27.5%, 대학교 평생교육관이 5.5%의 순으로, 노년층은 노인복지관이 61.0%, 평생교육센터가 18.0%,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가 17.1%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표 4-10> 노인교육기관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td>
<td>빈도</td>
<td>비율</td>
<td>빈도</td>
</tr>
<tr>
<td>① 평생교육센터</td>
<td>92</td>
<td>22.7</td>
<td>55</td>
</tr>
<tr>
<td>② 노인복지관</td>
<td>197</td>
<td>48.6</td>
<td>72</td>
</tr>
<tr>
<td>③ 대학교 평생교육관</td>
<td>15</td>
<td>3.7</td>
<td>11</td>
</tr>
<tr>
<td>④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td>
<td>97</td>
<td>24.0</td>
<td>62</td>
</tr>
<tr>
<td>⑤ 기타</td>
<td>4</td>
<td>1.0</td>
<td>0</td>
</tr>
<tr>
<td>계</td>
<td>405</td>
<td>100.0</td>
<td>200</td>
</tr>
</tbody>
</table>

3. 노인교육 강사 선호도

○ 노인교육 강사에 대한 선호도는 <표 4-11>과 같이 ‘노인교육 전문가’가 86.9%로 가장 높고, ‘지역유지 및 덕명가’가 6.2%, 대학교수가 5.9%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4. 노후 노인교육 참여 희망 여부

○ 노인교육 참여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 <표 4-12>와 같이 전체적으로 87.7%가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예비노년층의 92.0%, 노년층의 83.6%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노인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 여부

○ 노인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의 교육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표 4-13>과 같이 65.9%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예비노년층은 75.5%, 노년층은 56.6%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4-13  노인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참여 여부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r>
</thead>
<tbody>
<tr>
<td></td>
<td>비도</td>
<td>비율</td>
<td>비도</td>
</tr>
<tr>
<td>① 예(참여함)</td>
<td>267</td>
<td>65.9</td>
<td>151</td>
</tr>
<tr>
<td>② 아니오(참여하지 않음)</td>
<td>138</td>
<td>34.1</td>
<td>49</td>
</tr>
<tr>
<td>계</td>
<td>405</td>
<td>100.0</td>
<td>200</td>
</tr>
</tbody>
</table>

6. 노인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1)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예비노년층과 노년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노인의 성과 재혼 관련교육, 가족생활교육, 법률 및 재산관리교육, 경제생활교육, 재취업교육, 자원봉사교육’에서 노인층보다 예비노인층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14>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전체</th>
<th>예비노년층</th>
<th>노년층</th>
<th>t</th>
</tr>
</thead>
<tbody>
<tr>
<td></td>
<td>M</td>
<td>SD</td>
<td>M</td>
<td>SD</td>
</tr>
<tr>
<td>건강복지영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 건강관리교육</td>
<td>4.68</td>
<td>0.54</td>
<td>4.72</td>
<td>0.46</td>
</tr>
<tr>
<td>2. 노화에 대한 이해교육</td>
<td>4.33</td>
<td>0.70</td>
<td>4.37</td>
<td>0.64</td>
</tr>
<tr>
<td>3. 노인의 성과 재혼 관련 교육</td>
<td>3.34</td>
<td>1.01</td>
<td>3.54</td>
<td>0.83</td>
</tr>
<tr>
<td>4. 노인복지 교육</td>
<td>4.33</td>
<td>0.72</td>
<td>4.34</td>
<td>0.70</td>
</tr>
<tr>
<td>사회대인관계영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가족생활 교육</td>
<td>4.09</td>
<td>0.81</td>
<td>4.18</td>
<td>0.72</td>
</tr>
<tr>
<td>6. 대인관계 교육</td>
<td>4.12</td>
<td>0.81</td>
<td>4.10</td>
<td>0.80</td>
</tr>
<tr>
<td>7. 법률 및 재산관리교육</td>
<td>3.82</td>
<td>0.94</td>
<td>4.10</td>
<td>0.75</td>
</tr>
<tr>
<td>8. 사회변화 및 시사교육</td>
<td>3.87</td>
<td>0.88</td>
<td>3.99</td>
<td>0.74</td>
</tr>
<tr>
<td>9. 경제생활 교육</td>
<td>3.88</td>
<td>0.88</td>
<td>4.01</td>
<td>0.78</td>
</tr>
<tr>
<td>취업취미활동영역</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0. 재취업교육</td>
<td>3.84</td>
<td>1.00</td>
<td>4.13</td>
<td>0.78</td>
</tr>
<tr>
<td>11. 컴퓨터등 정보화교육</td>
<td>3.96</td>
<td>0.91</td>
<td>4.04</td>
<td>0.77</td>
</tr>
<tr>
<td>12. 외국어교육</td>
<td>3.41</td>
<td>0.96</td>
<td>3.45</td>
<td>0.87</td>
</tr>
<tr>
<td>13. 취미여가활동교육</td>
<td>4.38</td>
<td>0.74</td>
<td>4.44</td>
<td>0.66</td>
</tr>
<tr>
<td>14. 자원봉사교육</td>
<td>3.80</td>
<td>1.00</td>
<td>3.94</td>
<td>0.87</td>
</tr>
<tr>
<td>15. 종교생활교육</td>
<td>3.47</td>
<td>1.10</td>
<td>3.50</td>
<td>1.01</td>
</tr>
</tbody>
</table>

주) 5점 척도 평균점수(매우 필요하다=5, 필요하다=4, 보통이다=3, 필요하지 않은편이다=2, 매우 필요하지 않은편이다=1) * p<.05, **p<.01

2) 성별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

(1) 성별 건강 및 복지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성별로 건강 및 복지교육 영역의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표 4-15>와 같이 예비노년층에서 ‘건강관리교육’과 ‘성과 재혼에 관한 교육’은 여성보다 남성이의 선호도가 높고, 노인복지교육은 남성보다 여성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아니었음. 그러나 ‘노화에 대한 교육’은 남성(4.25점)보다 여성(4.47점)의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노년층에서 ‘건강관리교육’과 ‘노화에 대한 이해교육’, ‘노인복지교육’은 남성보다 여성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그러나 ‘성과 재혼에 관한 교육’은 여성(3.00점)보다 남성(3.35점)의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표 4-15> 성별 건강 및 복지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건강관리</th>
<th>노화 이해</th>
<th>성과 재혼</th>
<th>노인복지</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예비층</td>
<td>남</td>
<td>96</td>
<td>4.73(.44)</td>
<td>4.25(.66)</td>
<td>3.61(.75)</td>
</tr>
<tr>
<td></td>
<td>여</td>
<td>104</td>
<td>4.69(.48)</td>
<td>4.47(.59)</td>
<td>3.46(.89)</td>
</tr>
<tr>
<td></td>
<td>T</td>
<td>.720</td>
<td>-2.491**</td>
<td>1.312</td>
<td>-1.145</td>
</tr>
<tr>
<td>노년층</td>
<td>남</td>
<td>94</td>
<td>4.63(.60)</td>
<td>4.19(.78)</td>
<td>3.35(.99)</td>
</tr>
<tr>
<td></td>
<td>여</td>
<td>111</td>
<td>4.65(.61)</td>
<td>4.37(.74)</td>
<td>3.00(1.20)</td>
</tr>
<tr>
<td></td>
<td>T</td>
<td>-.246</td>
<td>-1.676</td>
<td>2.304*</td>
<td>-1.578</td>
</tr>
</tbody>
</table>

* p<.05, ** p<.01

(2) 성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성별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의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표 4-16>과 같이 예비노년층은 ‘대인관계교육’과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그러나 ‘가족생활교육’에서 남성 4.05점, 여성 4.29점, ‘법률 및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의 남성 3.95점, 여성 4.16점, ‘경제생활교육’의 남성 3.91점, 여성 4.12점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노년층은 ‘대인관계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남성(4.00점)보다 여성(4.26점)의 선호도가 높아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성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가족생활</th>
<th>대인관계</th>
<th>법률 재산</th>
<th>사회변화</th>
<th>경제생활</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예비층</td>
<td>남</td>
<td>96</td>
<td>4.05(7.3)</td>
<td>4.01(8.3)</td>
<td>3.95(7.7)</td>
<td>3.91(7.7)</td>
</tr>
<tr>
<td></td>
<td>여</td>
<td>104</td>
<td>4.29(6.9)</td>
<td>4.18(7.6)</td>
<td>4.16(7.2)</td>
<td>4.07(7.1)</td>
</tr>
<tr>
<td></td>
<td>t</td>
<td>-2.349*</td>
<td>-1.535</td>
<td>-2.034*</td>
<td>-1.536</td>
<td>-1.811*</td>
</tr>
<tr>
<td>노년층</td>
<td>남</td>
<td>94</td>
<td>3.90(9.2)</td>
<td>4.00(8.8)</td>
<td>3.70(9.0)</td>
<td>3.85(8.9)</td>
</tr>
<tr>
<td></td>
<td>여</td>
<td>111</td>
<td>4.08(8.6)</td>
<td>4.26(7.5)</td>
<td>3.49(1.14)</td>
<td>3.68(1.04)</td>
</tr>
<tr>
<td></td>
<td>t</td>
<td>-1.419</td>
<td>-2.299*</td>
<td>1.412</td>
<td>1.215</td>
<td>-0.759</td>
</tr>
</tbody>
</table>

* p<.05, ** p<.01

(3) 성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노년층은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전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선호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4-17> 성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재취업</th>
<th>컴퓨터</th>
<th>외국어</th>
<th>취미여가</th>
<th>자원봉사</th>
<th>종교생활</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예비층</td>
<td>남</td>
<td>96</td>
<td>4.17(7.8)</td>
<td>3.80(8.7)</td>
<td>3.22(8.6)</td>
<td>4.42(6.8)</td>
<td>3.85(9.1)</td>
</tr>
<tr>
<td></td>
<td>여</td>
<td>104</td>
<td>4.10(7.9)</td>
<td>4.25(6.0)</td>
<td>3.65(8.2)</td>
<td>4.44(6.5)</td>
<td>4.02(8.2)</td>
</tr>
<tr>
<td></td>
<td>t</td>
<td>.634</td>
<td>-4.270**</td>
<td>-3.657**</td>
<td>-1.62</td>
<td>-1.39</td>
<td>-1.971*</td>
</tr>
<tr>
<td>노년층</td>
<td>남</td>
<td>94</td>
<td>3.55(1.00)</td>
<td>3.87(9.4)</td>
<td>3.33(9.4)</td>
<td>4.26(8.3)</td>
<td>3.65(1.04)</td>
</tr>
<tr>
<td></td>
<td>여</td>
<td>111</td>
<td>3.57(1.20)</td>
<td>3.90(1.08)</td>
<td>3.41(1.14)</td>
<td>4.39(7.8)</td>
<td>3.68(1.15)</td>
</tr>
<tr>
<td></td>
<td>t</td>
<td>-0.92</td>
<td>-2.63</td>
<td>-5.12</td>
<td>-1.176</td>
<td>-2.31</td>
<td>-0.920</td>
</tr>
</tbody>
</table>

* p<.05, ** p<.01
3) 학력별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

(1) 학력별 건강 및 복지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학력별로 건강 및 복지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를 <표 4-18>에서 살펴본 결과, 예비노년층은 ‘건강관리교육’은 고졸 이상에서 높고, 노화에 대한 교육과 노인복지교육은 고졸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성과 재혼에 관한 교육’은 고졸 이상 3.57점으로 고졸 이하 2.90점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노년층은 ‘건강관리교육’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상이 4.75점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4.64점보다 높고, ‘성과 재혼에 관한 교육’에서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이 3.39점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 2.92점으로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table>
<thead>
<tr>
<th>표 4-18</th>
<th>학력별 건강 및 복지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th>
</tr>
</thead>
<tbody>
<tr>
<td>구분</td>
<td>N</td>
</tr>
<tr>
<td>예비노년층</td>
<td></td>
</tr>
<tr>
<td>고졸 이하</td>
<td>11</td>
</tr>
<tr>
<td>고졸 이상</td>
<td>189</td>
</tr>
<tr>
<td>t</td>
<td>- .578</td>
</tr>
<tr>
<td>노년층</td>
<td></td>
</tr>
<tr>
<td>초졸 이하</td>
<td>101</td>
</tr>
<tr>
<td>초졸 이상</td>
<td>104</td>
</tr>
<tr>
<td>t</td>
<td>-2.694**</td>
</tr>
</tbody>
</table>

* p<.05, ** p<.01

(2) 학력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학력별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를 <표 4-19>에서 살펴본 결과, 예비노년층은 가족생활교육과 법률재산교육, 사회변화교육에서는 고졸 이하에서 선호도가 높고, 대인관계교육과 법률 및 재산관리교육, 사회변화교육에서는 고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표 4-19) 학력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가족생활</th>
<th>대인관계</th>
<th>법률 재산</th>
<th>사회변화</th>
<th>경제생활</th>
</tr>
</thead>
<tbody>
<tr>
<td>예비 노년층</td>
<td>고졸 이하</td>
<td>11</td>
<td>4.27(.90)</td>
<td>4.09(.94)</td>
<td>4.18(.98)</td>
<td>4.00(.89)</td>
</tr>
<tr>
<td></td>
<td>고졸 이상</td>
<td>189</td>
<td>4.17(.71)</td>
<td>4.10(.79)</td>
<td>4.05(.74)</td>
<td>3.99(.74)</td>
</tr>
<tr>
<td></td>
<td>t</td>
<td>.463</td>
<td>-.039</td>
<td>.550</td>
<td>.046</td>
<td>-.439</td>
</tr>
<tr>
<td>노년층</td>
<td>초졸 이하</td>
<td>101</td>
<td>3.94(.90)</td>
<td>4.06(.88)</td>
<td>3.37(1.14)</td>
<td>3.41(1.05)</td>
</tr>
<tr>
<td></td>
<td>초졸 이상</td>
<td>104</td>
<td>4.06(88)</td>
<td>4.23(75)</td>
<td>3.79(89)</td>
<td>4.11(76)</td>
</tr>
<tr>
<td></td>
<td>t</td>
<td>-.940</td>
<td>-1.590</td>
<td>-2.965**</td>
<td>-5.471**</td>
<td>-2.129*</td>
</tr>
</tbody>
</table>
* p<.05, ** p<.01

(3) 학력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노년층은 재취업교육에서 초졸이상 3.76점, 초졸이하 3.36점, 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에서 초졸이상 4.06점, 초졸이하 3.72점, 외국어교육에서 초졸이상 3.58점, 초졸이하 3.16점, 취미여가활동교육에서 초졸이상 4.48점, 초졸이하 4.18점, 자원봉사교육에서 초졸이상 3.83점, 초졸이하 3.50점으로 초졸 이상에서 선호도가 높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표 4-20〉 학력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재취업</th>
<th>컴퓨터</th>
<th>외국어</th>
<th>취미</th>
<th>자원봉사</th>
<th>종교</th>
<th>생활</th>
</tr>
</thead>
<tbody>
<tr>
<td>학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고졸 이하</td>
<td>11</td>
<td>3.91(1.04)</td>
<td>4.82(4.0)</td>
<td>3.90(8.3)</td>
<td>4.55(6.9)</td>
<td>4.00(1.00)</td>
<td>3.82(9.8)</td>
<td></td>
</tr>
<tr>
<td>고졸 이상</td>
<td>189</td>
<td>4.14(7.7)</td>
<td>3.99(7.6)</td>
<td>3.42(8.6)</td>
<td>4.43(6.6)</td>
<td>3.94(8.6)</td>
<td>3.48(1.01)</td>
<td></td>
</tr>
<tr>
<td>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초졸 이하</td>
<td>101</td>
<td>3.36(1.22)</td>
<td>3.72(1.17)</td>
<td>3.16(1.12)</td>
<td>4.18(8.4)</td>
<td>3.50(1.22)</td>
<td>3.33(1.26)</td>
<td></td>
</tr>
<tr>
<td>초졸 이상</td>
<td>104</td>
<td>3.76(9.5)</td>
<td>4.06(8.2)</td>
<td>3.58(9.4)</td>
<td>4.48(7.4)</td>
<td>3.83(9.5)</td>
<td>3.56(1.09)</td>
<td></td>
</tr>
<tr>
<td>학력</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좋은</td>
<td>115</td>
<td>4.67(4.9)</td>
<td>4.25(6.7)</td>
<td>3.60(8.0)</td>
<td>4.32(6.7)</td>
<td></td>
<td></td>
<td></td>
</tr>
<tr>
<td>보통</td>
<td>74</td>
<td>4.78(4.1)</td>
<td>4.55(5.3)</td>
<td>3.57(8.5)</td>
<td>4.38(7.3)</td>
<td></td>
<td></td>
<td></td>
</tr>
<tr>
<td>나쁨</td>
<td>11</td>
<td>4.73(4.7)</td>
<td>4.27(6.5)</td>
<td>3.64(10.3)</td>
<td>4.27(7.9)</td>
<td></td>
<td></td>
<td></td>
</tr>
<tr>
<td>F</td>
<td></td>
<td>1.376</td>
<td>5.436**</td>
<td>.218</td>
<td>.201</td>
<td></td>
<td></td>
<td></td>
</tr>
<tr>
<td>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좋은</td>
<td>78</td>
<td>4.77(4.2)</td>
<td>4.41(7.0)</td>
<td>3.49(10.7)</td>
<td>4.33(7.0)</td>
<td></td>
<td></td>
<td></td>
</tr>
<tr>
<td>보통</td>
<td>83</td>
<td>4.63(6.9)</td>
<td>4.30(7.9)</td>
<td>2.99(11.0)</td>
<td>4.40(7.3)</td>
<td></td>
<td></td>
<td></td>
</tr>
<tr>
<td>나쁨</td>
<td>44</td>
<td>4.43(6.6)</td>
<td>4.05(7.8)</td>
<td>2.89(11.7)</td>
<td>4.16(8.1)</td>
<td></td>
<td></td>
<td></td>
</tr>
<tr>
<td>F</td>
<td></td>
<td>4.519**</td>
<td>3.332*</td>
<td>5.814**</td>
<td>1.529</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p<.05, ** p<.01

4) 건강상태별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

(1) 건강상태별 건강 및 복지교육 영역 프로그램 선호도

○ 건강상태별로 건강 및 복지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를 〈표 4-21〉에서 살펴본 결과, 예비노년층은 ‘노화의 이해에 대한 교육’에서 건강상태에 따라서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표 4-21〉 건강상태별 건강 및 복지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건강관리</th>
<th>노화 이해</th>
<th>성과 재혼</th>
<th>노인복지</th>
</tr>
</thead>
<tbody>
<tr>
<td>건강상태</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좋은</td>
<td>115</td>
<td>4.67(4.9)</td>
<td>4.25(6.7)</td>
<td>3.60(8.0)</td>
<td>4.32(6.7)</td>
</tr>
<tr>
<td>보통</td>
<td>74</td>
<td>4.78(4.1)</td>
<td>4.55(5.3)</td>
<td>3.57(8.5)</td>
<td>4.38(7.3)</td>
</tr>
<tr>
<td>나쁨</td>
<td>11</td>
<td>4.73(4.7)</td>
<td>4.27(6.5)</td>
<td>3.64(10.3)</td>
<td>4.27(7.9)</td>
</tr>
<tr>
<td>F</td>
<td></td>
<td>1.376</td>
<td>5.436**</td>
<td>.218</td>
<td>.201</td>
</tr>
<tr>
<td>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좋은</td>
<td>78</td>
<td>4.77(4.2)</td>
<td>4.41(7.0)</td>
<td>3.49(10.7)</td>
<td>4.33(7.0)</td>
</tr>
<tr>
<td>보통</td>
<td>83</td>
<td>4.63(6.9)</td>
<td>4.30(7.9)</td>
<td>2.99(11.0)</td>
<td>4.40(7.3)</td>
</tr>
<tr>
<td>나쁨</td>
<td>44</td>
<td>4.43(6.6)</td>
<td>4.05(7.8)</td>
<td>2.89(11.7)</td>
<td>4.16(8.1)</td>
</tr>
<tr>
<td>F</td>
<td></td>
<td>4.519**</td>
<td>3.332*</td>
<td>5.814**</td>
<td>1.529</td>
</tr>
</tbody>
</table>

* p<.05, ** p<.01
노년층은 건강관리교육과 노화에 대한 이해, 성과 재능에 관한 교육에서 건강이 좋을수록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2) 건강상태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노년층은 가족생활교육에서 건강이 좋을수록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표 4-22〉 건강상태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교육 영역 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가족생활</th>
<th>대인관계</th>
<th>법률 재산</th>
<th>사회변화</th>
<th>경제생활</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예비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좋음</td>
<td>115</td>
<td>4.08(.74)</td>
<td>4.02(.83)</td>
<td>4.01(.77)</td>
<td>3.96(.75)</td>
<td>3.91(.94)</td>
</tr>
<tr>
<td>보통</td>
<td>74</td>
<td>4.32(.66)</td>
<td>4.24(.78)</td>
<td>4.11(75)</td>
<td>4.05(.74)</td>
<td>4.07(.76)</td>
</tr>
<tr>
<td>나쁨</td>
<td>41</td>
<td>4.18(.75)</td>
<td>4.00(.89)</td>
<td>4.28(.65)</td>
<td>3.91(.70)</td>
<td>3.98(.78)</td>
</tr>
<tr>
<td>F</td>
<td>2.682*</td>
<td>1.923</td>
<td>.852</td>
<td>.454</td>
<td>.359</td>
<td></td>
</tr>
<tr>
<td>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좋음</td>
<td>78</td>
<td>4.21(.81)</td>
<td>4.24(.78)</td>
<td>3.74(.100)</td>
<td>3.86(.94)</td>
<td>3.76(.91)</td>
</tr>
<tr>
<td>보통</td>
<td>83</td>
<td>4.01(.90)</td>
<td>4.14(.83)</td>
<td>3.54(.104)</td>
<td>3.70(.100)</td>
<td>3.71(.102)</td>
</tr>
<tr>
<td>나쁨</td>
<td>44</td>
<td>3.61(.89)</td>
<td>3.96(.86)</td>
<td>3.36(.108)</td>
<td>3.70(.102)</td>
<td>3.80(.91)</td>
</tr>
<tr>
<td>F</td>
<td>6.547**</td>
<td>1.765</td>
<td>1.998</td>
<td>.630</td>
<td>.120</td>
<td></td>
</tr>
</tbody>
</table>

* p<.05, ** p<.01

(3) 건강상태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노년층은 취미여가활동교육에서 건강이 좋은 경우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제출된 결과, 예비노년층은 '가족생활교육'에서 건강상태에 따라서 선호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노년층은 가족생활교육에서 건강이 좋을수록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노년층은 건강관리교육과 노화에 대한 이해, 성과 재능에 관한 교육에서 건강이 좋을수록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표 4-23 건강상태별 취업 및 취미활동 교육 영역 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재취업</th>
<th>컴퓨터</th>
<th>외국어</th>
<th>취미여가</th>
<th>자원봉사</th>
<th>종교생활</th>
</tr>
</thead>
<tbody>
<tr>
<td>예비 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좋음</td>
<td>115</td>
<td>4.11(78)</td>
<td>3.98(79)</td>
<td>3.42(87)</td>
<td>4.41(69)</td>
<td>3.97(87)</td>
<td>3.54(105)</td>
</tr>
<tr>
<td>보통</td>
<td>74</td>
<td>4.18(76)</td>
<td>4.14(71)</td>
<td>3.49(85)</td>
<td>4.50(65)</td>
<td>3.96(83)</td>
<td>3.54(954)</td>
</tr>
<tr>
<td>나쁨</td>
<td>11</td>
<td>4.00(100)</td>
<td>4.00(100)</td>
<td>3.45(134)</td>
<td>4.28(47)</td>
<td>3.45(93)</td>
<td>2.12(87)</td>
</tr>
<tr>
<td>F</td>
<td>.301</td>
<td>.992</td>
<td>.143</td>
<td>.777</td>
<td>1.850</td>
<td>2.684*</td>
<td></td>
</tr>
<tr>
<td>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좋음</td>
<td>78</td>
<td>3.70(101)</td>
<td>4.00(101)</td>
<td>3.45(99)</td>
<td>4.38(76)</td>
<td>3.74(10)</td>
<td>3.56(120)</td>
</tr>
<tr>
<td>보통</td>
<td>83</td>
<td>3.53(19)</td>
<td>3.61(95)</td>
<td>3.37(116)</td>
<td>4.42(75)</td>
<td>3.72(05)</td>
<td>3.28(120)</td>
</tr>
<tr>
<td>나쁨</td>
<td>44</td>
<td>3.39(13)</td>
<td>3.61(95)</td>
<td>3.23(96)</td>
<td>4.05(91)</td>
<td>3.40(19)</td>
<td>3.55(107)</td>
</tr>
<tr>
<td>F</td>
<td>1.128</td>
<td>2.208</td>
<td>.621</td>
<td>3.582*</td>
<td>1.302</td>
<td>1.410</td>
<td></td>
</tr>
</tbody>
</table>

* p<.05, ** p<.01

5) 생활수준별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

(1) 생활수준별 건강 및 복지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건강관리</th>
<th>노화 이해</th>
<th>성과 재훈</th>
<th>노인복지</th>
</tr>
</thead>
<tbody>
<tr>
<td>예비 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상</td>
<td>20</td>
<td>4.70(57)</td>
<td>4.45(60)</td>
<td>3.80(70)</td>
<td>4.50(61)</td>
</tr>
<tr>
<td>중</td>
<td>159</td>
<td>4.72(45)</td>
<td>4.37(64)</td>
<td>3.51(83)</td>
<td>4.33(70)</td>
</tr>
<tr>
<td>하</td>
<td>21</td>
<td>4.67(48)</td>
<td>4.24(62)</td>
<td>3.48(87)</td>
<td>4.29(78)</td>
</tr>
<tr>
<td>F</td>
<td>.149</td>
<td>.603</td>
<td>1.161</td>
<td>.614</td>
<td></td>
</tr>
<tr>
<td>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상</td>
<td>20</td>
<td>4.65(81)</td>
<td>4.15(109)</td>
<td>3.55(123)</td>
<td>4.40(82)</td>
</tr>
<tr>
<td>중</td>
<td>142</td>
<td>4.63(51)</td>
<td>4.35(64)</td>
<td>3.12(110)</td>
<td>4.32(70)</td>
</tr>
<tr>
<td>하</td>
<td>43</td>
<td>4.65(78)</td>
<td>4.14(91)</td>
<td>3.10(117)</td>
<td>4.30(83)</td>
</tr>
<tr>
<td>F</td>
<td>.017</td>
<td>1.664</td>
<td>1.368</td>
<td>.130</td>
<td></td>
</tr>
</tbody>
</table>

* 5점 척도 평균점수; * p<.05, ** p<.01
○ 생활수준별로 건강 및 복지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를 표 4-24에서 살펴본 결과, 예비노년층과 노년층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2) 생활수준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생활수준별로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를 표 4-25에서 살펴본 결과, 예비노년층에서 가족생활교육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모두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노년층에서는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에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4-25 생활수준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가족생활</th>
<th>대인관계</th>
<th>법률재산</th>
<th>사회변화</th>
<th>경제생활</th>
</tr>
</thead>
<tbody>
<tr>
<td>생활수준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예비노년층</td>
<td>20</td>
<td>4.65(0.49)</td>
<td>4.25(0.55)</td>
<td>4.35(0.67)</td>
<td>4.20(0.70)</td>
<td>4.35(0.59)</td>
</tr>
<tr>
<td>총</td>
<td>159</td>
<td>4.14(0.71)</td>
<td>4.09(0.82)</td>
<td>4.03(0.75)</td>
<td>3.97(0.75)</td>
<td>3.98(0.79)</td>
</tr>
<tr>
<td>하</td>
<td>21</td>
<td>3.96(0.80)</td>
<td>4.05(0.80)</td>
<td>4.01(0.84)</td>
<td>3.90(0.70)</td>
<td>3.90(0.83)</td>
</tr>
<tr>
<td>F</td>
<td>5.777**</td>
<td>.416</td>
<td>1.669</td>
<td>.969</td>
<td>2.210</td>
<td></td>
</tr>
<tr>
<td>노년층</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상</td>
<td>20</td>
<td>4.05(0.94)</td>
<td>4.15(1.04)</td>
<td>3.80(1.15)</td>
<td>4.10(0.79)</td>
<td>4.10(0.85)</td>
</tr>
<tr>
<td>중</td>
<td>142</td>
<td>4.06(0.82)</td>
<td>4.13(0.75)</td>
<td>3.63(0.99)</td>
<td>3.79(0.94)</td>
<td>3.75(0.88)</td>
</tr>
<tr>
<td>하</td>
<td>43</td>
<td>3.79(1.06)</td>
<td>4.16(0.92)</td>
<td>3.33(1.13)</td>
<td>3.51(1.12)</td>
<td>3.56(1.18)</td>
</tr>
<tr>
<td>F</td>
<td>1.509</td>
<td>.022</td>
<td>1.900</td>
<td>2.698*</td>
<td>2.253</td>
<td></td>
</tr>
</tbody>
</table>

* 5점 척도 평균점수; * p<.05, ** p<.01

(3) 생활수준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 생활수준별로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를 표 4-26에서 살펴본 결과, 예비노년층에서 컴퓨터 등 정보화교육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종교생활교육에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노년층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취미 및 여가활동교육, 자원봉사교육에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4-26> 생활수준별 취업 및 취미활동 영역 교육프로그램 선호도

<table>
<thead>
<tr>
<th>구분</th>
<th>N</th>
<th>재취업</th>
<th>컴퓨터</th>
<th>외국어</th>
<th>취미여가</th>
<th>자원봉사</th>
<th>종교생활</th>
</tr>
</thead>
<tbody>
<tr>
<td>생활수준별</td>
<td>예비노년층</td>
<td>상 20</td>
<td>4.25(.72)</td>
<td>4.40(.68)</td>
<td>3.70(.73)</td>
<td>4.45(.60)</td>
<td>3.90(.91)</td>
</tr>
<tr>
<td></td>
<td>중 159</td>
<td>4.09(.79)</td>
<td>3.99(.75)</td>
<td>3.40(.89)</td>
<td>4.43(.67)</td>
<td>3.93(.87)</td>
<td>3.50(1.01)</td>
</tr>
<tr>
<td></td>
<td>하 21</td>
<td>4.33(.80)</td>
<td>4.05(.92)</td>
<td>3.52(.81)</td>
<td>4.48(.68)</td>
<td>4.05(.86)</td>
<td>3.38(1.12)</td>
</tr>
<tr>
<td></td>
<td>F</td>
<td>1.167</td>
<td>2.577*</td>
<td>1.146</td>
<td>.055</td>
<td>.191</td>
<td>.242</td>
</tr>
<tr>
<td></td>
<td>노년층</td>
<td>상 20</td>
<td>3.70(.98)</td>
<td>4.05(1.00)</td>
<td>3.60(.99)</td>
<td>4.40(.88)</td>
<td>3.80(1.15)</td>
</tr>
<tr>
<td></td>
<td>중 142</td>
<td>3.49(1.13)</td>
<td>3.92(99)</td>
<td>3.42(1.03)</td>
<td>4.34(.75)</td>
<td>3.68(1.04)</td>
<td>3.41(1.14)</td>
</tr>
<tr>
<td></td>
<td>하 43</td>
<td>3.72(1.10)</td>
<td>3.74(1.14)</td>
<td>3.09(1.13)</td>
<td>4.26(.93)</td>
<td>3.58(1.28)</td>
<td>3.44(1.28)</td>
</tr>
<tr>
<td></td>
<td>F</td>
<td>.872</td>
<td>.729</td>
<td>2.169</td>
<td>.264</td>
<td>.278</td>
<td>.535</td>
</tr>
</tbody>
</table>

* 5점 척도 평균점수; * p<.05, ** p<.01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노년층과 예비노년층인 중장년층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알맞은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였음. 본 연구의 주요 조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노인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노년층 및 예비노년층이 모두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교육 참여 희망 여부도 노년층과 예비노년층에서 모두 높은 참여 의사를 보였음.
- 이처럼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인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인교육의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특히 예비노년층이 노년층보다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참여의사가 높았는데 앞으로 예비노년층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체계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노인교육기관 선호도에서는 노년층과 예비노년층이 모두 노인복지관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 노년층의 61.0%, 예비노년층의 36.0%가 노인복지관을 선호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외의 시설로는 예비노년층은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31.0%), 평생교육센터(27.5%) 등도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노인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셋째, 노인교육 강사 선호도는 노년층과 예비노년층 모두 노인교육 전문가를 가장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인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노년층의 56.6%, 예비노년층의 75.5%가 참여하겠다고 함.
- 향후 노인교육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교육 전문가와 노인교육
지도자를 적극 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넷째, 노인교육에서 가장 선호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예비노년층과 노년층 모두 건강교육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취미·여가활동교육, 대인관계 교육, 노화에 대한 교육, 노인복지교육을 선택하였음.
- 그러나 노인의 성과 재혼관련 교육과 법률 및 재산관리교육, 경제생활교육, 재취업교육, 자원봉사교육에서는 노년층보다 예비노년층의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노년층보다 예비노년층이 더욱 다양한 분야의 노인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건강교육, 취미여가활동교육, 대인관계교육, 노화에 대한 교육, 노인복지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그 외에도 향후 노인교육에서는 인의 성과 재혼관련 교육과 법률 및 재산관리교육, 경제생활교육, 재취업교육, 자원봉사교육 등을 포함한 더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예비노년층과 노년층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하게 나타났음.

생활수준별로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예비노년층에서는 ‘가족생활교육’에서 그리고 노년층은 ‘사회변화에 대한 교육’에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이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참조하여, 향후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예비노년층과 노년층의 성별, 학력별, 건강상태별, 생활수준별 선호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구미옥·강영실·김은심·안황란·오현숙·윤영(2002),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2(3), 384-394.


보건복지부(2008), “노인교육 활성화방안”.

--------(2011), 2011 노인복지시설 현황.


안황란(1999),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죽음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정신간호학회지>, 8(1), 44-68.


____(2001),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정종식(1999), “평생교육차원에서의 노인교육”, 《건전사회교육연구》.
통계청(2001), 「장래 인구추계」.
-----(2011). 「2011 고령자통계」.
-----(2001),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____(2000), 《노인교육론》, 충북: 협신사.
부 록
부록 1.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설문지

노인교육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응답 ID [ ]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인교육프로그램 선호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비밀이 보장되며, 대전광역시 노인교육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 9.

대전발전연구원장 이 창 기

연구책임자 : 사회복지학 박사 장창수(연구실 530-3545)
1. 귀하의 연령은 만 45세 이상만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 __세)

2.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을 위한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치 않은 편이다  ⑤ 전혀 필요치 않다

3. 노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head>
<tr>
<th>필요한 교육내용</th>
<th>매우 필요하다</th>
<th>필요한 편이다</th>
<th>그저 그렇다</th>
<th>필요하지 않은 편이다</th>
<th>전혀 필요치 않다</th>
</tr>
</thead>
<tbody>
<tr>
<td>1. 건강관리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 노화에 대한 이해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 재취업 기술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 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외국어 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 노인의 성과 재혼관련 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 가족생활 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 대인관계 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 노인복지 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0. 법률 및 재산관리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1. 취미-여가활동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 사회변화 및 시사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3. 경제생활 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4. 자원봉사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 종교생활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6.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4. 노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전시의 평생교육센터, 인재개발원   ② 노인복지관
   ③ 대학교 평생교육원   ④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⑤ 기타(어디:  )

5. 노인교육의 강사는 어떤 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대학교수   ② 노인교육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
   ③ 지역유지, 덕망있는 분   ④ 기타(누구:  )

6. 귀하는 앞으로 퇴직 등 노후 대비를 위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는 대전시에서 노인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하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실태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학력은?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3.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기타(  ) ⑤ 없음
4.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5.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배우자 있음  ② 사별  ③ 재혼  ④ 별거  ⑤ 이혼  ⑥ 미혼

6. 귀댁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잘 산다  ② 잘사는 편이다  ③ 보통 정도이다
④ 못 사는 편이다  ⑤ 매우 못 산다

7. 귀하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
① 배우자 상실  ② 고독과 외로움
③ 건강의 악화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자녀 등 젊은 세대와 갈등  ⑥ 소일거리와 삶의 보람이 없음
⑦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⑧ 사회의 풍대접과 무관심
⑨ 아무런 문제가 없음  ⑩ 기타(무엇:  )

③ 노인교육 관련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
-------------------------------------------------------------------------------------------------------------------------------
-------------------------------------------------------------------------------------------------------------------------------

<table>
<thead>
<tr>
<th></th>
<th>전화)</th>
</tr>
</thead>
<tbody>
<tr>
<td>조사원</td>
<td>성명:</td>
</tr>
<tr>
<td></td>
<td>면접일시: 2011년 월 일</td>
</tr>
</tbody>
</table>
부록 2 대전광역시 노인대학 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교실 명</th>
<th>운영 자</th>
<th>대표자</th>
<th>소재 지 (전화번호)</th>
<th>운영 기간</th>
<th>운영 횟수</th>
<th>수강 (당)</th>
<th>설치일</th>
<th>신고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40개소</td>
<td></td>
<td></td>
<td></td>
<td></td>
<td>115</td>
<td>* 86.2.1</td>
<td>5,666</td>
<td></td>
</tr>
<tr>
<td>동구 (7)</td>
<td>동구지회부설 노인대학</td>
<td>(사)대한노인회 대전동구지회</td>
<td>강봉섭</td>
<td>정동 39-3 (221-4705)</td>
<td>연중</td>
<td>화,목,금</td>
<td>300</td>
<td>*09.2</td>
<td>신고</td>
</tr>
<tr>
<td></td>
<td>금성노인봉사회 노인요양시설</td>
<td>금성노인봉사회 류재천</td>
<td>동대문78-4 (635-5976)</td>
<td>연중</td>
<td>화,수,목,목,일</td>
<td>350</td>
<td>*90.3.5</td>
<td>미신고</td>
<td></td>
</tr>
<tr>
<td></td>
<td>대전제일교회 경로대학</td>
<td>제일교회</td>
<td>김철민</td>
<td>중동 16-1 (255-9997)</td>
<td>3월 9~11일</td>
<td>50</td>
<td>*05.3</td>
<td>신고</td>
<td></td>
</tr>
<tr>
<td></td>
<td>대동복지관 노인대학</td>
<td>대동복지관 김현제</td>
<td>대동1-35 (673-8337)</td>
<td>3월 7~12월</td>
<td>화,수,목</td>
<td>80</td>
<td>*98.3</td>
<td>미신고</td>
<td></td>
</tr>
<tr>
<td></td>
<td>성남장로교회 문화교육</td>
<td>성남장로교회 정인영</td>
<td>성남동504-12 (622-6452)</td>
<td>연중</td>
<td>주1회</td>
<td>50</td>
<td>*02.1</td>
<td>미신고</td>
<td></td>
</tr>
<tr>
<td></td>
<td>대전중부 실버대학</td>
<td>대전중부교육 조상용</td>
<td>가양동 20-11</td>
<td>3월 9~12월</td>
<td>주1회</td>
<td>100</td>
<td>*09.9</td>
<td>미신고</td>
<td></td>
</tr>
<tr>
<td>중구 (4)</td>
<td>시 연합회부설 노인지도자대학</td>
<td>(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규태</td>
<td>대동동311-1 (252-7115)</td>
<td>2월 ~ 11월</td>
<td>수</td>
<td>400</td>
<td>*95.3.2</td>
<td>신고</td>
<td></td>
</tr>
<tr>
<td></td>
<td>중구지회부설 노인대학</td>
<td>(사)대한노인회 대전중구지회</td>
<td>송난영</td>
<td>대평동510-164 (524-6937)</td>
<td>연중</td>
<td>수</td>
<td>96</td>
<td>*98.03.12</td>
<td>신고</td>
</tr>
<tr>
<td></td>
<td>중구지회부설 노인학교</td>
<td>(사)대한노인회 대전중구지회</td>
<td>조현춘</td>
<td>석교동98-3 (284-5447)</td>
<td>연중</td>
<td>화</td>
<td>70</td>
<td>*89.03.1</td>
<td>신고</td>
</tr>
<tr>
<td></td>
<td>도원복지연구회 부설 노인요양시설</td>
<td>도원복지연구회 양봉석</td>
<td>대평동332-19 (528-7582)</td>
<td>연중</td>
<td>화,목,금,토</td>
<td>40</td>
<td>*05.01.24</td>
<td>신고</td>
<td></td>
</tr>
<tr>
<td>서구 (7)</td>
<td>서구노인회부설 노인대학</td>
<td>(사)대한노인회 대전서구지회</td>
<td>강범용</td>
<td>강남구259-17 (526-4832)</td>
<td>3월 11일</td>
<td>화목금</td>
<td>230</td>
<td>*95.2</td>
<td>신고</td>
</tr>
<tr>
<td></td>
<td>한밭상복대학</td>
<td>한밭상복대 김인숙</td>
<td>원평동218 (주01138) (484-4323)</td>
<td>3월 11일</td>
<td>화목금</td>
<td>120</td>
<td>*94.3</td>
<td>미신고</td>
<td></td>
</tr>
<tr>
<td></td>
<td>우리노인대학</td>
<td>서구노인종합복지관</td>
<td>황한민</td>
<td>태평동 1084 (488-6297)</td>
<td>3월~12월</td>
<td>월금</td>
<td>300</td>
<td>*97.4</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장수대학</td>
<td>장수따라한 복지관</td>
<td>소종영</td>
<td>정림동 637 (584-4451)</td>
<td>3월~12월</td>
<td>월금</td>
<td>190</td>
<td>*98.3</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어르신은빛 장수대학</td>
<td>염창리사회복지관 최주환</td>
<td>원평동218 (주01338) (484-6181)</td>
<td>3월~11월</td>
<td>월금,금,토</td>
<td>100</td>
<td>*94.3</td>
<td>미신고</td>
<td></td>
</tr>
<tr>
<td></td>
<td>한마음노인대학</td>
<td>관산중교사회복지관 유창윤</td>
<td>관직동 1140 (545-6810)</td>
<td>3월~12월</td>
<td>화목금</td>
<td>150</td>
<td>*04.6</td>
<td>미신고</td>
<td></td>
</tr>
<tr>
<td></td>
<td>선화교회노인대학</td>
<td>기독교감리회선화 교회</td>
<td>유두동</td>
<td>원평동19-3 (525-3141)</td>
<td>3월 9~11일</td>
<td>토</td>
<td>80</td>
<td>*04.4</td>
<td>미신고</td>
</tr>
<tr>
<td>구분</td>
<td>교실명</td>
<td>운영자</td>
<td>대표자</td>
<td>소재지 (전화번호)</td>
<td>운영기간</td>
<td>운영횟수</td>
<td>수강수 (명)</td>
<td>설치일</td>
<td>신고여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유성구 (10)</td>
<td>유성구지회부설 노인대학</td>
<td>노인연합회 유성구지회</td>
<td>조재돈</td>
<td>흥동중앙 451-5 (826-4610)</td>
<td>연중</td>
<td>수1회</td>
<td>100</td>
<td>81.9.1</td>
<td>신고</td>
</tr>
<tr>
<td></td>
<td>유성노인복지대학</td>
<td>시간수</td>
<td>시간수</td>
<td>구암동 593-8 (825-1108)</td>
<td>연중</td>
<td>수3회</td>
<td>80</td>
<td>84.12.5</td>
<td>신고</td>
</tr>
<tr>
<td></td>
<td>노은노인대학</td>
<td>노산기독교 한국침례회</td>
<td>남술우</td>
<td>노운동 487 (823-2300)</td>
<td>연중</td>
<td>수1회</td>
<td>120</td>
<td>02.9.1</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은빛노인대학</td>
<td>송강중합사회복지관</td>
<td>김영미</td>
<td>송강동 10 (934-6338)</td>
<td>3-6, 9-11 (7개월)</td>
<td>월,수,금</td>
<td>120</td>
<td>96.3.1</td>
<td>신고</td>
</tr>
<tr>
<td></td>
<td>전민동노인생활대학</td>
<td>대전교구천주교회 유치감독인전민동성당</td>
<td>효한수</td>
<td>전민동 476-1 (863-8803)</td>
<td>연중</td>
<td>수1회</td>
<td>14</td>
<td>04.9.23</td>
<td>신고</td>
</tr>
<tr>
<td></td>
<td>명성실버대학</td>
<td>대한예수교장로회대전예장교회</td>
<td>이정성</td>
<td>송강동 171-4 (042-934-9119)</td>
<td>연중</td>
<td>수1회</td>
<td>150</td>
<td></td>
<td>비신고</td>
</tr>
<tr>
<td></td>
<td>아름다운노인학교</td>
<td>대한예수교장로회대덕구연동예장교회</td>
<td>음성태</td>
<td>여운동 111-11 (042-861-9679)</td>
<td>3-7월</td>
<td>수1회</td>
<td>60</td>
<td>02.9.1</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한밭제일교회노인대학</td>
<td>사회복지법인 한밭제일교회복지관</td>
<td>정명호</td>
<td>원내동 111-11 (042-935-7301)</td>
<td>연중</td>
<td>수1회</td>
<td>100</td>
<td>05.3.1</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대전시민노인대학</td>
<td>대전시민교회</td>
<td>정영호</td>
<td>송강동 310 (042-935-7301)</td>
<td>연중</td>
<td>수1회</td>
<td>100</td>
<td></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뿌리노인교실 (사) 공동육아</td>
<td>관광학교</td>
<td>관광학교 1248 (35-8237)</td>
<td>3-7월</td>
<td>수회</td>
<td>50</td>
<td>08.12.10</td>
<td>신고</td>
<td></td>
</tr>
<tr>
<td>대덕구 (12)</td>
<td>대덕구지회부설 노인대학</td>
<td>대덕노인연합회 대덕구지회</td>
<td>송민영</td>
<td>닭암동 48-16 (032-6069)</td>
<td>3-7월</td>
<td>수12월</td>
<td>100</td>
<td>85.3.5</td>
<td>사립</td>
</tr>
<tr>
<td></td>
<td>노인복지관 노인대학</td>
<td>노인연합회노인회</td>
<td>최영숙</td>
<td>연축동 188-2 (627-0976)</td>
<td>3-7월</td>
<td>수12월</td>
<td>120</td>
<td>00.2.9</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송촌장로 노인대학</td>
<td>송촌장로교회</td>
<td>장백혜</td>
<td>중리동 492-1 (637-5004)</td>
<td>3-7월</td>
<td>수11월</td>
<td>500</td>
<td>02.4.8</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법동창춘대학</td>
<td>법동중학사회복지관</td>
<td>박성준</td>
<td>법동 188 (033-0239)</td>
<td>4-7월</td>
<td>수</td>
<td>70</td>
<td>98.4.8</td>
<td>사립</td>
</tr>
<tr>
<td></td>
<td>신한경로일장로교회노인대학</td>
<td>신한경로일장로교회</td>
<td>안영배</td>
<td>신한경로 155-20 (035-9328)</td>
<td>3-6월</td>
<td>수</td>
<td>200</td>
<td>92.3.5</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영락경로대학</td>
<td>영락교회</td>
<td>김동모</td>
<td>법동 400 (626-8310)</td>
<td>3-7월</td>
<td>수</td>
<td>150</td>
<td>00.3.5</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중도노인대학</td>
<td>중도장로교회</td>
<td>양승명</td>
<td>비례동 129-8 (626-4750)</td>
<td>3-7월</td>
<td>수</td>
<td>160</td>
<td>06.9.5</td>
<td>미신고</td>
</tr>
<tr>
<td></td>
<td>연한순노인대학</td>
<td>연한순교회</td>
<td>조진수</td>
<td>닭암동 4-27 (032-5791)</td>
<td>2-7월</td>
<td>수12월</td>
<td>120</td>
<td>08.9.19</td>
<td>사립</td>
</tr>
<tr>
<td></td>
<td>한성장로교회 노인대학</td>
<td>한성교회</td>
<td>이재영</td>
<td>비례동 103-5 (632-0675)</td>
<td>3-6월</td>
<td>수</td>
<td>70</td>
<td>07.3.5</td>
<td>사립</td>
</tr>
<tr>
<td></td>
<td>영광교회노인대학</td>
<td>영광교회</td>
<td>정동옥</td>
<td>원내동 20-20 (033-9191)</td>
<td>3-6월</td>
<td>수</td>
<td>100</td>
<td>09.9.5</td>
<td>사립</td>
</tr>
<tr>
<td></td>
<td>오성장로교회 노인대학</td>
<td>오성장로교회</td>
<td>최재영</td>
<td>오성 223-12 (035-9323)</td>
<td>3-6월</td>
<td>수</td>
<td>81</td>
<td>09.3.5</td>
<td>사립</td>
</tr>
<tr>
<td></td>
<td>시온교회 노인대학</td>
<td>시온교회</td>
<td>고성기</td>
<td>오성동 296-6</td>
<td>3-6월</td>
<td>수</td>
<td>80</td>
<td>0993.5</td>
<td>사립</td>
</tr>
</tbody>
</table>
노인교육 프로그램 선호도에 관한 연구

발행인 이 창 기
발행일 2011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160-20)
전화 : 042-530-3545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